

枕肱 한시에 나타난 「수행의 반려자」로서의 달

정혜란*

〈차례〉

- I. 머리말
- II. 枕肱 한시에 나타난 달의 양상
 - 1. 달의 형상
 - 2. 달이 나타난 시점과 분위기
 - 3. 달이 비치는 장소
 - 4. 달이 나타나는 계절
- III. 「수행의 반려자」로서의 달
 - 1. 오도에 이르는 인도자로서의 달
 - 2. 참선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달
 - 3. 슬픔과 외로움을 같이하는 벗으로서의 달
- IV. 맺음말

I. 머리말

枕肱(1616-1684)은 조선 중기의 승려이다. 그의 속성은 尹씨이고, 법명은 縣辯이며, 자는 而訥이다. 枕肱은 곧 縣辯의 호이다. 그는 스스로 규두에서 태어나 필문에서 자랐고 주머니에는 개미를 빨만한 노끈도 없고, 부엌에는 파리가 모일만한 밥도 없었으며, 더욱 슬픈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연로하셨으며 형이 옷이 얇으니 동생도 춥게 지냈다고 할 정도로¹⁾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

* 전남대학교

던 것 같다. 그는 12세에 출가하여 13세에 승려가 되었다.²⁾ 그러나 枕肱이 9세에 天風山 處愚에게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³⁾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출가하기 전부터 절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가 불문과 인연을 맺은 것 또한 가난한 가세와 관련이 깊은 것 같기도 하다.⁴⁾ 그는 출가는 하였지만 뜻은 여전히 속세에 있으면서 文史 등 일반 학문에 더 심취해 있었으며, 상당히 방대한 양의 독서를 했던 것 같다.⁵⁾ 그러나 그의 나이 18세에 산에 땀감을 구하러 갔다가 아랫배를 다쳐서 사경을 헤맨 적이 있고, 그 후에도 계속 병마에 시달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았던 것을 그의 시와 가사 작품을 통하여 알 수 있다.⁶⁾ 몸이 아픈 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그간의 독서 생활을 접고 그 후로는 주로 마음을 닦는 참선에 정진하면서 오도를 체험하게 된다. 그는 젊은 시절 동복현(지금의 전남 화순군 동복면) 客舍의 上樑文 관계로 당시 시조 문학의 대가였던 고산 윤선도와 만나 고산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枕肱이 상당한 문학 작품을 남기게 된 것은 고산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⁷⁾

-
- 1) 그의 문 《歎風勸友尋師》, “儂生于圭竇, 長於筆門, 囊乏繫蝮之繩, 廚絕聚蠅之飯, 嗚呼哀哉! 父亡母老 兄薄弟寒(목판본 枕肱集 下 14판).
 - 2) 그의 가사 작품 《版山曲》에 “十二에 出家호야 十三에 爲僧호야” 라고 기록되어 있다.
 - 3) 이상보, 『한국 불교가사 전집』, 民俗苑, 1996, 27쪽.
 - 4) 정혜란, 「枕肱의 歌辭文學 研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7쪽.
 - 5) 그의 문 《歎風勸友尋師》에서, “…或奔南華之遠, 五萬語之汪洋, 或拘闕里之聖門牆高數仞而難測, 或研鄒論之賢傳, 道越七篇而罔涯, 於是佷佷然頑爲懵憧. 故三千細行全無, 似龜毛之不實, 八萬威儀總缺, 若免角之無形…….” 라고 말하고 있다(목판본 枕肱集 下 14판-15판). 이로서 그의 독서량을 짐작할 수 있다.
 - 6) 그의 가사 작품인 《版山曲》의 “此身믄득주거/ 八寒八熱 諸地獄에/ 다꾸겨 든니며/ 無限苦痛 受홀時에”라고 쓴 부분, 그의 한시 《上安生求差退眩氣之藥》의 “眩氣侵身藥未求,” 《次白谷韻》의 “十年多病臥山樊” 부분 등.
 - 7) 정혜란, 앞의 논문, 9쪽.

枕肱의 스승은 逍遙 太能이다.⁸⁾ 枕肱은 逍遙 太能을 지리산으로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조선불교통사』의 <太能>編에 「禪宗을 얻은 자는 枕肱 懸辯이요, 敎宗을 전한 자는 海運 敬悅이다.⁹⁾」라는 기록을 보더라도, 枕肱이 얼마나 탁월한 禪僧이었는데가를 짐작할 수 있다. 枕肱은 스님이지만 유가와와의 교유도 유지해 왔다. 그의 한시 중 유가와와의 교유시가 적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枕肱은 승려로서 참선에만 전념했던 사람이지만, 한시와 문, 가사 등 많은 문학작품을 남긴 작가이기도 하다. 그가 남긴 문학 작품으로는, 한시 119수, 가사 4편, 文 28편이 있다. 그의 문학 작품은 그가 入寂한 12년 뒤에 제자들이 흠어져 있는 그의 글을 모아 목판으로 판각하여 선암사에 보관하고 있어 僞作의 시비가 있을 수 없다. 그의 한시는 목판본 『枕肱集』에, 그의 문은 목판본 『枕肱集下』에 각 실려 있고,¹⁰⁾ 그의 가사는 이와 별도로 목판 8판에 실려 있다.¹¹⁾

현재까지 정리되어 전해지는 불교 가사가 모두 70여 편에 불과한데, 그 중 4편이 枕肱의 작품이고, 적지 않는 수의 한시와 문이 판각되어 보존되어 있다. 그것을 볼 때 선승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고전문학의 작가로서의 그의 위상은 상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필자는 2002년도 가을에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의 도움으로 직접 선암사에 가서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침필 가사 목판본 8판을 찾

8) 逍遙는 法諱가 太能이며 전남 담양 사람이다. 그에 대한 자료는 『韓國佛教全書』 第8冊 <逍遙堂集·逍遙大禪師行狀>, 198-199쪽 참조.

9) “得其禪宗者枕肱懸辯, 傳其敎宗者海運敬悅.”, 《太能》, 『朝鮮佛教通史』 上, 501쪽.

10) 목판본 『枕肱集』은 총31판으로 되어 있는데, 枕肱 序 1판, 行狀 4판, 한시부분 25판, 單一 1판이 그것이다. 한시부분 1판부터 25판에 그의 한시 117수와 附原文 7수가 실려 있고, 마지막 31판인 單一에 「放敎參禪」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또 목판본 『枕肱集下』는 총51판으로 그의 문이 실려 있다.

11) 그의 가사 작품은 《飯山曲》·《太平曲》·《青鶴洞歌》·《往生歌》 순으로 판각되어 있다.

아¹²⁾ 손수 인쇄하였으며, 2004년 대한불교 태고종 총무원 교무부장 법현 스님으로부터, 滿雲스님이 佛紀 二五三四년 여름에 손수 선암사 소장 목판본을 인쇄한, 『枕肱集』, 『枕肱集 下』를 입수하였다.

枕肱 한시는 목판본 『枕肱集』에 오언절구가 28題에 28수, 칠언절구가 44題에 47수, 육언절구가 1수, 오언율시가 8題에 8수, 칠언율시가 32題에 33수 등 112題에 117수가 실려 있고, 목판본 『枕肱集 下』의 文속에 2수가 들어있다.¹³⁾ 그래서 전해진 그의 한시는 총 119수이다. 枕肱 한시에는 어떤 단어보다도 달(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의 한시는 오언절구 28수 중 14수, 칠언절구 47수 중 19수, 오언율시 8수 중 4수, 칠언율시 33수 중 8수, 두 편의 문 속에 나오는 시 2수(오언절구1수, 칠언절구1수) 등 총 47수이다. 그의 한시 119수 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 47수에 달이 나오는 것이다.

이 연구는 枕肱 한시에 나타나는 달의 양상에 대해서 달의 형상, 달이 나타나는 시점과 분위기, 달이 비치는 장소, 달이 나타나는 계절 순으로 기술하고, 이를 통해서 달의 여러 가지 이미지 중 「수행의 반려자」로서의 달에 한정하여, 오도에 이르는 인도자로서의 달, 참선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달, 슬픔과 외로움을 같이하는 벗으로서의 달 순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枕肱 한시에 나타난 달의 양상

12) 그때까지만 해도 선암사 스님들조차 침괘 가사 목판본이 선암사에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 그것을 찾아 필자가 6부를 인쇄하여 4부는 선암사 성보 박물관에 보관하였고 나머지 2부는 필자가 소장하고 있다.

13) 그의 문 《天蓋山上院菴記》에 1수, 《仙岩寺能仁殿重創勸文》에 1수 등 2수.

1. 달의 형상

枕肱 한시에 나타나는 달은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을 하고 있다. 나타나는 모습에 있어서, 《呈岑道人》에서의 月上東岑, 《宿沙灘上仙壇寺》에서의 月出五峯, 《初入仙岩寺》에서의 層峯月과 같이 동쪽 피뿌리와 산봉우리에서 떠오르기도 하고, 층층이 쌓인 바위틈에서 솟아나기도 한다. 《次翠峯韻》의 中峯月처럼 바위와 바위 사이로 보이기도 하고, 《金華山 澄光寺》에서의 松月, 《清夜聞磬》에서의 松窓月掛와 같이 소나무 사이로 얼굴을 내밀기도 하고, 《寓居靈源庵有二儒求詩夢作》에서의 高樹露微月과 같이 높고 큰 나무에 가렸다가 살짝 보이기도 한다. 《登香爐臺二首》에서의 月滿天, 《再用前 白軒高韻》에서의 月滿洲, 《禪餘偶吟謹呈順雲大師》에서의 月掛처럼 하늘과 섬을 가득 채운 채 높이 떠 있거나 걸려 있기도 하고, 《呈白谷香案》에서의 明月上孤峯과 같이 외로운 봉우리에 떠있기도 한다. 또한 《題金流洞逍遙堂壁上》에서의 山月窓前白처럼 산사의 창에 비치기도 하며, 《送 黃舍郎歸富有村》에서의 月孤輪과 같이 외롭게 홀로 돌고 있기도 한다. 《送趙生之京》에서의 月欲殘과 같이 서산으로 기울어가기도 하고, 《寒夜有懷》에서의 月隱西山과 같이 아주 서산에 숨어버리기도 한다. 나타나는 장소에 있어서도, 하늘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贈圭道人》에서의 月印潭, 《上樂安郡守》에서의 騰彭澤月같이 못 속에 잠겨있거나 반사되기도 하고, 《彌陀殿重朔》에서의 月籠苔와 같이 이끼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기도 하고, 《次頤菴韻》에서의 月影侵人과 같이 그 그림자가 사람을 침범하기도 한다. 세상을 밝힘에 있어서, 《與故人遊仙巖寺》에서의 月明, 《敬奉崔上舍》에 있어서 月白과 같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밝혀주기도 하지만, 《張生損世後往見空座》와 《登鰲山有道詵古跡》에서의 月空明처럼 슬픔에 잠겨 있는 마음을 달래주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밝기만 하거나, 도선 국사가 떠난 후 천년 동안 인걸이 없는 오

산을 헛되이 밝히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謹次集勝亭板上韻》에서의 今夜不教明月去처럼 가는 곳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버리기도 한다. 위와 같은 능동적으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送澄老師歸方丈》과 《贈白谷》에서의 月中遊와 같이 사람이 유유자적하면서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歸家時途中作》에서의 應知故山鶴 待我月中鳴과 같이 枕肱이 어린 시절을 보낸, 정든 고향의 옛 산에 사는 학이 枕肱을 기다리며 울어 줄 무대를 설치해 주기도 하고, 《文殊殿重創》에서의 指頭月처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되어 주기도 한다. 그 모양에 있어서도 《呈會蓮大師》에서의 滿月과 같이 가득 찬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가 하면, 《贈行脚僧》에서의 月似鉤처럼 갈고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한다.

위와 같이 枕肱 한시에 나타나는 달은 동쪽 산봉우리에서 떠오르기도 하고, 하늘 한가운데에 둥실 떠 있기도 하며, 서쪽으로 기울기도 한다. 또한 송창에 걸려 있기도 하고, 강물에 잠기기도 하며, 산사의 창문을 비치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돌기도 하며, 아주 서산에 숨어버리기도 한다. 혹은 만월이 되어 방긋 웃기도 하고, 혹은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밝히기도 하지만, 소극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되어 주기도 하고, 선승이 유유자적하며 노는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2. 달이 나타난 시점과 분위기

枕肱 한시에 나타난 달은 그 모습만 다양한 것이 아니다, 달이 나타나는 시점과 분위기도 각기 다르다. 달이 보이는 시간대는, 《呈會蓮大師》에서의 禪窓日側遲와 《謹次金峰大師韻》에서의 滿目江山雨後처럼 해가 아직 떨어지기 전의 해 질 무렵이거나 《宿沙灘上仙壇寺》에서의 迢迢夜未央과 같이 밤이 아직 깊지 않은 초저녁인 경우도 있고, 《呈岑道人》에서의 夜深山雨後, 《登香爐臺二首》의 夜深

坐對談眞處, 《次翠峯韻》의 鶴唳中岩月 鍾鳴半夜風 《謹次黃下山韻》에서의 月華當戶夜三更처럼 깊은 삼경의 한밤중인 경우도 있으며, 《山中夜坐絕句呈日鑑老師香案》에서의 東窓曉月明, 《清夜聞磬》의 一聲清磬夢初醒 驚起松窓月掛明, 《送趙生之京》의 梅窓月欲殘과 같이 날이 새는 새벽녘인 경우도 있다. 달이 나타나는 때 주위의 분위기를 보면, 《謹次金峰大師韻》에서의 滿目江山雨後奇와 《呈岑道人》의 夜深山雨後, 《謹呈 白軒相國》의 雨餘紅蓼月처럼 비 온 뒤에 눈에 들어오는 강산이 모두 기묘하기도 하고, 《贈圭道人》에서의 山白雲和雪 江明月印潭과 같이 구름과 눈이 어울려 산이 희고, 강이 밝기도 한다. 枕肱 한시에서 달이 나타나는 때의 주위 환경이 이렇게 맑고 밝고 깨끗하고 조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敬次野遺堂韻》의 臘梅初吐雪과 같이 선달에 하얀 매화가 떨어져 눈처럼 날리기도 하고, 《詠竹》의 風揉月夕梢彈琴과 같이 바람이 불어 대나무 가지가 비파를 연주하기도 하며, 《呈營將》의 月明歌吹動禪扉와 같이 술 취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며 선방의 방문을 흔들어도 대기도 한다.

枕肱 한시에서의 달은 해가 떨어지기 전의 초저녁일 때도 있고, 깊은 한 밤중일 때도 있으며, 날이 새는 새벽녘일 때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枕肱이 얼마나 참선에 열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초저녁에 뜨는 초승달부터 밤이 새는 새벽 무렵에 뜨는 그믐달까지 모두 볼 수 있었다.

달이 나타날 때 주위의 분위기는 대개 선승의 마음이 평안하여 비가 내린 후에 보이는 앞산과 같이 기묘하고 맑고 깨끗하다. 허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때로는 선달에 하얀 매화가 떨어져 눈처럼 바람에 흩날리듯 산만하기도 하고, 술에 취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며 참선하는 방의 창문을 흔들어도 참선을 방해하기도 한다. 무아정적의 경지에 빠져 있는 선승의 깨끗한 모습과 함께 심리적 갈등과 흔들림을 엿볼 수 있다.

3. 달이 비치는 장소

枕肱 한시에 나타나는 달의 모습이 다양하고 시구마다 분위기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달이 비치는 장소 역시 가리지 않는다. 枕肱 한시에서 달빛은 《謹呈 白軒相國》에서의 雨餘紅蓼月과 같이 비 온 뒤에 붉은 여뀌 풀밭을 비치고, 《送趙生之京》의 相逢坐對孤村夜와 같이 친구와 마주 앉아 있는 외로운 시골 마을도, 《登香爐臺二首》의 風滿前庭과 같이 바람이 가득한 앞뜰도, 《贈白谷》의 靜看庭柏과 같이 선승이 바라보는 뜰 앞의 백수자도, 《呈會蓮大師》의 禪窓과 같이 선승이 좌선을 하고 있는 선방의 창문에도 비치고, 《用前 白軒高韻》의 風滿孤舟와 같이 바람이 살랑대는 고독한 낚시 배 위에도, 《贈行脚僧》에서의 雲盡秋空처럼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가을 하늘도, 《題鰲山庵》의 世外仙都和 같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 밖에 있는 신선들의 도읍도, 《張生損世後往見空座》의 四休亭上과 같이 정자 위에도 비친다. 또, 《遊山》의 智異東瞻大白月과 같이 지리산에서 동쪽으로 귀처럼 늘어진 태백산에도, 《次頤菴韻》의 非眞非妙處와 같이 무아정적의 경지에 몰입하여 참되지도 않고 오묘하지도 않는 곳까지도 비친다.

枕肱은 수많은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의 달을 각기 다른 느낌으로 토해낸다. 달이 비치는 장소를 통하여 枕肱이 공부와 참선을 위하여 여러 곳을 찾아다닌 사실을 알 수 있고, 신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넘나드는 그의 선승으로서의 경지를 짐작할 수 있다.

4. 달이 나타나는 계절

위와 같이 달의 모습이 각양각색이고, 달이 비치는 세상의 분위기가 각기 다르며, 달이 비치는 때와 장소가 다양한 것으로 보아 枕肱이 그의 한시에서 노래한 달은 사시사철의 모든 달일 것이다. 그의 한시마다 계절이 표시된 것은 아니지만 枕肱의 한시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 계절이 표현되어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을(秋)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金華山 澄光寺》 등 18수인데 그 중 달이 나타난 것은 위 시 등 7수이고, 봄(春)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敬次野遺堂韻》 등 11수인데 그 중 달이 나타난 것은 《謹次黃下山韻》 단 1 수뿐이고, 겨울(冬)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단어는 없지만 《送隱休大師歸仙山》에서의 雪中人去時와 같이 눈(雪), 추움(寒)이라는 표현을 써서 간접적으로 계절이 추운 겨울임을 나타낸 것이 5수이다. 하지만 여름(夏)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거나 여름을 상징하는 더움(暑)을 쓴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枕肱 한시에서, 가을에 나타나는 달은 《金華山 澄光寺》에서의 秋晴古寺深, 《與故人遊仙巖寺》에서의 秋晴孤寺夜처럼 맑게 갠 가을날 산 속 깊이 있는 고찰에 찾아오기도 하고, 《再用前 白軒高韻》에서의 相公偏愛江楓秋와 같이 상공이 특별히 좋아하는 단풍든 가을 강에 비치기도 하고, 《謹呈 白軒相國》에서의 獨占漁磯漢水秋와 같이 홀로 낚시터를 독차지하고 한수의 가을을 즐기고 있는 비 내린 뒤의 생동하는 여뀌 풀밭 위에도 비치고, 《贈行脚僧》에서의 雲盡秋空月似鉤와 같이 구름이 걷힌 높고 맑은 가을 하늘에 갈고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贈白谷》에서의 涉水登山望遠秋와 같이 산 넘고 물 건너다니다 지쳐 멀리 가을 하늘을 쳐다보는 선승에게 유유자적하며 노닐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하고, 《題鰲山庵》에서의 不關秋色亂層巒처럼 세상 밖 신선이 사는 도읍에 비침으로서 단풍든 가을 경치가 겹겹 산등성이에 산란하여도 아무 상관없이 만들기도

한다.

枕肱 한시에서, 봄에 나타나는 달은 《謹次黃下山韻》의 豈料天明春色暮처럼 ‘달이 밝으면 봄의 경치가 끝에 가까워짐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으랴’ 며 세월이 빠르고, 인생이 무상함을 노래하는 노선승의 창문을 비치고 있다.

枕肱 한시에서 달은 《贈圭道人》에서의 山白雲和雪처럼 구름과 눈이 어우러져 산이 하얀 겨울날 밝은 강물에 잠기기도 하고, 《敬次野遺堂韻》에서의 臘梅初吐雪처럼 선달에 매화가 떨어져 눈처럼 날리기 시작하는 때에 이제는 시선(詩仙)과 이별하고 실망하여 멍하니 쳐다보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寒夜有懷》에서의 布衾不耐羸異氣와 같이 무명이불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추운 기운을 견뎌낼 수 없는 겨울에 서쪽 하늘로 숨어버리기도 한다. 위와 같이 枕肱은 추운 계절을 겨울(冬)로 직접 표현하지 않고 겨울을 상징하는 눈(雪), 추움(寒)으로 표현하여 차갑고 고통스러운 겨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다.

枕肱의 한시에 표현된 계절을 분석한 결과 여느 시인과 마찬가지로 枕肱도 가을과 봄을 좋아했던 것 같다. 가을에 읊은 시가 18수, 봄에 읊은 시가 11수로 겨울에 읊은 시 5수보다 훨씬 많지만, 여름에 읊은 시는 발견할 수 없다. 枕肱의 행장¹⁴⁾과 그의 한시¹⁵⁾와 가사 등을 보면 枕肱은 열여덟 살 때 산에 땀감을 하러갔다가 아랫배를 다쳐서 사경을 헤맸을 뿐만 아니라 병마에 시달려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⁶⁾ 그 여파로 인하여 그는 수행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그의 한시에 신체적인 고통을 표현한 부분이 종종 보인다.¹⁷⁾ 몸을 움직여 일하는 노동자와는 달리

14) 『枕肱集』, 行狀1판 左.

15) 《次白谷韻》의 “十年多病臥山樊”

16) 정혜란, 위의 논문 8쪽.

17) 《上安生求差退眩氣之藥》, 《寒夜有懷》 등

가만히 앉아 참선하는 스님에게는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산림이 있는 여름이 가장 좋은 계절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여름에는 시를 쓰지 않고 계곡과 산에서 수행에만 정진하다 시원한 가을이 되면 명산대천과 고찰을 두루 구경하고 고승과 유가의 시생들을 만나 교류하며 시를 읊고, 추어지면 다시 산사로 돌아와 지내다가 날이 풀리면 다시 돌아다니며 수행과 시작(詩作)을 하였나 보다. 그는 주로 봄과 가을에, 경치 좋고 참선하기에 마땅한 곳을 찾아다니며, 깨달음의 경지를 향한 선승의 의지와 감회를 표현하고, 지리산과 태백산 등이 연출하는 승경을 노래하고, 그러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의 우정과 이별을 시로서 표현했다. 가을과 마찬가지로 봄 또한 枕肱이 시를 많이 쓴 계절이기는 하지만 枕肱의 한시 중 봄에 쓴 시는 가을에 쓴 시와 느낌이 사뭇 다르다. 枕肱의 한시 가운데 가을에 쓴 시 총 18수 중 7수에 달이 나타나는데 반하여 봄에 쓴 시 11수 중에는 달이 나오는 것이 단 1수에 불과하다. 그것은 아마 수행에 정진하는 선승 시인에게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는, 붉은 꽃,¹⁸⁾ 푸른 잎,¹⁹⁾ 산들바람,²⁰⁾ 나비와 벌,²¹⁾ 제비,²²⁾ 매화,²³⁾ 나비,²⁴⁾ 버들잎²⁵⁾ 등 생물이 더 많이 눈에 띄었고, 바람이 서늘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외롭고 쓸쓸한 가을에는 텅 빈 하늘에 홀로 떠 있는 외로운 달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보다. 눈 덮인 깊은 산 속

18) 《智異山金流洞偶吟》의 “洞裡花紅紅射日”

19) 《題松廣寺 葉齊山路綠苔迷》의 “葉齊山路綠苔迷”

20) 《次白谷大老韻》의 “花零細細風”

21) 《玉洞明花》의 “笑看蜂蝶忘辛苦”

22) 《傷春》의 “池畔泥融鶯影忙”

23) 《次白谷韻》의 “閑步柳堤芳草路 倦尋梅塢落花村”

24) 《贈龍興老師來印圓覺經》의 紛紛舞蝶穿花影

25) 《春日偶吟》의 “雨裏千絲柳葉垂”, 《呈野遺堂》의 “雞村雨過柳如烟”

의 추운 겨울은 선승에게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었을 것이다. 몸이 아파 죽음의 고비까지 맞았던 枕肱에게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눈(雪)과 추움(寒)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시 5수는, 불도 넣지 못한 냉방에서 누더기 면 이불에 의지하여 겨울을 나아하는, 잠 못 이루는 긴 밤의 아픔과 고통을 표현한 것이다.

이상으로 枕肱 한시에 나타난 달의 형상과 분위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부터는 이 연구의 본론에 해당하는 枕肱 한시에 나타난 달의 이미지, 그 중에서도 평생을 참선에 정진한 선승에게 「수행의 반려자」로서의 달을,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로서의 달, 참선을 함께하는 동료로서의 달, 슬픔과 외로움을 같이 하는 친구로서의 달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K C I

Ⅲ. 「수행의 반려자」로서의 달

1. 오도에 이르는 인도자로서의 달

枕肱은 세속적인 삶을 떠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선의 참맛을 즐기는 선승이었다. 그는 번뇌를 해탈하고 불계에 들어갈 수 있는 불도의 묘리를 깨닫기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여 무아 정적의 경지에 몰입하는 선을 생활화 한 스님이다. 그가 참선을 할 때 곁에는 스승도 제자도 동료 스님도 아무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달만이 높은 하늘에 떠서 그와 함께 하였다. 선승으로서의 枕肱에게 달은, 때로는 등불로서 무지와 어두움을 밝혀주는 스승이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이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자연 속에서 참선을 함께하는 동료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이별의 슬픔과 외로움을 같이 나누는 친구이기도 했다. 이것이 곧 枕肱 한시에 나타난 달의 이미지 중 「수행의 반려자」로서의 달이다. 먼저 참선에 정진하는 침핑에게 등불의 역할을 한 달의 이미지를 본다. 《문岑道人》에서 枕肱은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西來一寶燭 서쪽 인도에서 온 보배로운 등불을
何必苦推尋 어찌 꼭 찾으려고 괴로워해야 합니까?
夜深山雨後 밤이 깊고 산비가 온 뒤에
涼月上東岑 맑은 달이 동쪽 봉우리 위에 떠오릅니다.

침핑은 가르침을 받을 스승을 찾아 사방팔방을 헤맸다. 올바른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올바른 스승을 찾지 못했다. ‘서쪽에서 온 보배로운 등불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하여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밤이 깊도록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있다. 고민 끝에 해답을 찾았다.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쪽에서 온 등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 서역에서 온 등불을 찾지 못함을 괴로워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선방에 앉아 있다.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하고 산에 비까지 내린 뒤라 공기가 차고 맑다. 그 때 티 없이 밝은 달이 동쪽 큰 산봉우리에 등실 떠오른다. 시인은 소리 지른다. '바로 저거다. 저 달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동산에 등실 뜬 저 맑고 밝은 달을 스승삼아 열심히 정진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꼭 서역에서 온 큰 스님을 만나 그 분으로부터 배워야 한단 말인가'라고. 나아가 枕肱은 《贈行脚僧》에서 수행하는 중에게 이렇게 외친다.

爾也年逾四十籌 그대는 나이가 40이 넘도록
 飽參智識遍南州 집회에 많이 참가하고 선지식을 얻기 위해 남쪽 고을을
 두루 돌아다녔소.
 西來妙旨何煩問 달마가 서쪽에서 온 불가사의 한 뜻을 어찌 번민하여 물을
 것인가?
 雲盡秋空月似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에 달이 마치 갈고리 같소.

이 시는 나이가 40이 넘도록 선지식을 찾아 널리 남쪽 고을을 빠짐없이 두루 돌아다니는 자신에게 퍼붓는 강한 질타인 듯 하다. 그는 그의 문 《敬呈野遺堂》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한 뒤 10년 동안 외로운 몸이 천리를 돌아다니기에 지팡이 하나를 짚하여 漢水 북쪽을 떠돌기가 부평초 같은 신세였고 嶺 남쪽을 다니기가 썩대 같은 생활이었기에 누더기 옷은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의 달밤에 바랬고 짚신은 지리산 팔십 아홉 절의 이끼에 닳도록 다녔습니다. 아직 일백십성이 못되었지만 나이는 벌써 이십팔이 지났습니다. 그러기에 선암사에 들어와서 포과를 배우고…….26)

26) 然後十年單瓢千里短錫任浮萍於漢北逐轉蓬於嶺南納白蓬萊萬二千之峯月鞋 青方丈八

아무리 돌아 다녀도 참다운 스승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뜰 앞의 백수자”라고 대답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찌 번거롭게 서쪽에서 온 묘한 뜻을 반복하여 물겠는가. 앞의 시에서 枕肱은 보배로운 등불을 찾으려고 고민 중에 동쪽 산봉우리에 등실 떠오르는 달을 보고 “그래, 바로 저거다!”라고 소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40이 넘도록 사승(師僧)을 찾아 헤매는 자신을 보고 다시 한 번 맑은 하늘에 깔고리 모습을 하고 있는 밝은 달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저 달이 바로 너의 등불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보배로운 등불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쳐 해탈하지 못하고 번뇌에 싸여 있는 인간들을 깨달음의 경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上兜率吟》²⁷⁾에서 등불로서의 달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한다.

月白塵心白 달이 밝으니 세속의 마음도 깨끗해지고
風清世慮清 바람이 맑으니 속세의 근심도 없어집니다.
隱居無別意 세상을 버리고 피하여 사는 것은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고
只欲學無生 단지 내가 없는 것(무생)²⁸⁾을 배우고자 합니다.

달빛이 희고 밝으니 세속에 때 묻은 마음도 깨끗해진다. 또한 바람이 맑고 시원하니 속세의 근심도 없어진다. 달이 채색되지 않아 희

十九之寺苔行未及百十城 臘已過二八跌 故學匏瓜於仙寺……(목판 『枕肱集』 下, 10판右)

27) 上兜率은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산에 있는 선운사의 산내암자이다. 신라 때 창건되었다. 상·하 도솔암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도솔만 남아있다. 내원궁·나한전·요사체가 있고 내원궁에 모셔져 있는 지장보살좌상(보물 제280호)은 조선 초기 5대 걸작 불상의 하나이다.

28) 涅槃의 진리는 生滅이 없으므로 무생이라 한다. 그러므로 무생의 이치를 觀하여 생멸의 번뇌를 깨뜨리는 것이 곧 일반의 진리이다. 원각경에 「일체 중생은 無生가운데서 생멸을 망각한다. 그러므로 轉輪生死라 설한다」 하였다.

고, 맑고, 밝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세속의 때가 묻어 더럽혀진 자신의 마음도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노래하고 있다. 이와 대구하여 바람이 청량하니 아직도 잊지 못하고 속세를 염려하는 온갖 근심과 걱정이 깨끗이 없어진다고 읊고 있다. 침핑은 달을 통하여 부처님 또는 자기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스승의 고귀한 인품과 덕성을 찬미하고 있다. 여기에서 바람은 대기의 기운이 아닌 풍속, 즉 주위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버리고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사찰에서 오직 깨달음을 얻고자 정진 수행하는 스님들과 그 주위의 자연 환경이 너무나 맑고 맑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스승의 덕이 높고 인품이 훌륭하고 밝으니, 세속에 때 묻은 더러운 자신의 마음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으며, 주위 환경이 맑고 깨끗하고, 같이 있는 스님들이 모두 수행에 정진하니 자신도 역시 속세의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명예와 부귀를 버리고 속세를 떠나 깊은 산사에 피하여 사는 것은 특별한 뜻이나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만 생명이 없고, 너와 내가 없는 열반의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단지 무생가운데서 생명을 망각하는 열반의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라는 표현이 무섭다. 자신의 굳은 각오를 가볍게 표현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너와 내가 없는 무생의 깨달음만을 배우고자 한다니 그것을 배워 익혀버리면 더 배울 것이 무엇이 남겠는가. 이제 열반에 이르렀고, 부처가 되었으니 하산하는 것밖에 무엇이 남았겠는가. 그는 다시 《禪餘偶吟謹呈順雲大師》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月掛天顏白 달은 걸쳐있어 온 하늘을 밝게 하고
 花零地面紅 꽃은 떨어져 온 땅을 붉게 합니다.
 於斯高着眼 이와 같이 속되지 않는 것에 눈을 두고 있으니
 誰曰小林風 지위 낮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누가 말할 수 있겠습

니까?

이 시는 하늘에 걸쳐있는 달과 땅에 떨어지는 꽃을 대구시키고 있다. 하늘에 밝은 빛을 발하는 광채가 걸쳐있어 온 하늘이 밝고 깨끗하다. 땅에 아름다운 꽃이 떨어져 온 지면이 붉은 빛을 띤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하늘의 얼굴을 밝게 하여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땅에 떨어지는 꽃은 땅의 얼굴을 붉게 하여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참선에 정진하는 스님이 선을 멈추고 잠깐 동안 여가를 가졌다. 그 틈을 이용하여 시 한 수를 읊는다. 하늘에 높이 떠서 세상을 밝게 비치는 있는 달의 묘사로 기구(起句)를 짓고, 더 나아가 땅에 떨어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꽃의 묘사로 승구(承句)를 지었다. 시인은 이 시를 받을 선운대사가 하늘을 밝게 하는 달과 땅을 아름답게 하는 꽃에 숭고한 착안을 하고 있다고 읊고 있다. 저 하늘에 높이 떠 온 세상을 밝히는 달을 등불삼아 수행에 정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밝은 달을 스승 삼았으니 어찌 잔 숲의 바람과 같은 시시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신약성경에도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다(골로새서3:2). 인간은 자기가 속해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따라서 위에 속한 사람은 위엿 것을 생각하고 위엿 것을 추구하며,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²⁹⁾ 사람이 높고 숭고한 것에 착안하여 거기에 뜻을 두면 높고 숭고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낮고 비천한 것에 눈을 돌리면, 낮고 비천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시인은 위 두 구를 대비시킴으로서 선운대사의 인품과 덕이 하늘을 밝게 하는 달과 땅을 붉게 하는 꽃과 같이 온 세상을 밝고, 맑고, 깨끗하게 하는데 착안하고 있다고 극찬하고 있다. 시인이 보기에 선운대사라는 분은 하늘에 덩그렇게 걸쳐 온 천지를 비치는 달처럼, 낙화되어 비가 오듯 떨어

29) 제자원, 『그레드 종합주석』, 성서교재간행사, 1993, 844쪽.

저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붉은 꽃잎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하는데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던 같다. 이렇게 낮은 곳에 있지만 높은 곳에 눈을 돌리고, 몸은 비록 비천하다 할지 모르지만 뜻은 항상 승고하고, 신분이나 지위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눈은 항상 높은 곳에 두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 어떤 사람이 소인배의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강한 부정문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 시에서의 달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덕 높고 고결한 스승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허나 스승이라고 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마다 항상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방황하는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있다고나 할까. 사람의 마음이란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바뀔 수도 있다. 방금 까지 평온했던 마음이 순간적으로 상황이 바뀌면 풍량이 일어날 수도 있다. 몇 번이나 생각을 고쳐하지만 주위를 보는 순간, 곧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채찍질을 해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枕肱은 《謹次集勝亭板上韻》에서 마음이 산만하여 갈피를 잡지 못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노래한다.

偶尋高閣一節過 우연히 큰 절을 찾아 지나가던 길에
 烟淡沙頭露濕荷 연기가 낀 모래 위에 이슬 머금은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霜重柳梢枝減嫩 서리가 내리니 버들가지는 고운 빛이 감하고
 雨飛池面水增波 비가 날리니 못 위에는 물결이 일어납니다.
 愁邊始覺身將老 근심하는 것은 비로소 몸이 늙어 감을 깨닫기에
 客裡方知鬢欲華 나그네 생활에서 귀밑머리가 희어짐을 느낍니다.
 今夜不教明月去 오늘밤 밝은 달이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으니
 清歌妙舞醉姮娥 구성진 노래와 기발한 춤으로 달을 취하게 하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여기 저기 큰 절을 찾아다녔건만 아직도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는데 빗줄기가 날려 연못의

수면을 때린다. 빗방울의 때림으로 인하여 수면에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시인의 마음에도 풍량이 일어난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다. 몸이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귀밑의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아직 생·노·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유일한 선생님인 달에게 물어본다. 그러나 말이 없다.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한다고 길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자기만 어디론가 가고 있다. 枕肱이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달은 훌륭한 선생님의 상이다. 선생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말에게 물을 먹여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선생으로서의 본분만 잃지 않으면 된다. 어디로 간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한다고 말해줄 필요도 없다. 이심전심, 모든 것은 서로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나 시인은 답답하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또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답해 주세요.”라고 안달이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기발한 몸놀림도 해 본다. 달에 사는 아름다운 여인 항아(姮娥)를 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생님인 달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온갖 애교를 다 부린다. 허나 아무 소용이 없다. 진정한 선생은 그런 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터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달은 동쪽 뒤편에 등실 떠오르거나 하늘 한가운데 높이 걸려있거나 어디론가 부지런히 가거나, 하여튼 자기의 모습은 보여주었다. 어떤 때는 빛을 발하여 어두움을 밝혀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황하는 발길을 바로 잡아 주기도하고, 캄캄한 밤에 길을 인도해 주기도 했다. 보배로운 등불이었다. 그런가 하면 아무 말도 없이 혼자 가버림으로서 스스로 터득하도록 하기도 했지만 모습을 감추기까지는 않았다. 그런데 자신이 견딜 수없이 어둡고 춥다고

느껴졌을 때, 그래서 동반자가 가장 절실한 순간, 그 동반자인 달은 오히려 자취를 감춰버렸다. 枕肱은 《寒夜有懷》에서 정말 어둡고 추울 때의 달을 이렇게 노래한다.

月隱西山風色涼 달은 서산에 숨어 버리고 날씨는 싸늘한데
滿天星斗鬪光芒 하늘 가득 별들이 서로 더 밝다고 다투어 빛의 위세를 부린다.

布衾不耐羸異氣 무명이불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추운 기운을 견뎌낼 수가 없어
愁枕肱頭待太陽 진전궁궁 팔베개 베고 태양이 뜨기를 기다립니다.

바람 끝이 찬 겨울날, 불도 제대로 지피지 못한 선방에 홀로 앉아 있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질병에 시달리는 노승이 그렇게 겨울밤을 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방보다 밖이 나을 수도 있다. 방에서 떨고 앉아 있는 것 보다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추위를 이기는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볼 대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꼭 필요로 할 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법이다. 달마저 서산으로 숨어버리고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등불이 되어 길을 훤히 안내해 주던 달이 오늘은 왜 숨어버렸을까. 춥고 괴로워서 번뇌가 차올랐기 때문이 아닐까. 별들은 하늘에 가득히 떠 있지만, 그리고 그들도 등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다투어 빛을 발하여 위세를 부린다. 하지만 별빛 가지고는 선방의 냉기를 쫓을 수 없다. 누워보기도 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앉아있기도 하지만 먼 이불 한 장으로는 추운 겨울의 선방 냉기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노승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없다. 팔베개를 하고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올라 냉방을 따뜻이 해줄 때까지 고통을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부모도, 형제도, 배우자도, 스승도 춥고 괴로울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이 이겨내야 한다. 枕肱이 사승으로 모시고

존경하는 달도 진정 그가 추위에 시달리며 괴로워할 때는 서산으로 숨어버리고 없다.

2. 참선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달

이상에서 참선하는 선승에게 깨달음에 경지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스승으로서,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로서,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인도자로서의 달의 이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처럼 枕肱에게 달은 엄격한 스승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정한 친구이기도 하다. 그는 암자에서 혹은 자연에서 평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외톨이는 아니었다. 그가 참선을 할 때는 달이 함께해 주었다. 달은 그의 참선의 동반이었다. 그는 《金華山 澄光寺》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迢遞崇峯下 멀리 첩첩히 둘러 친 어둑히 높은 상봉우리 밑에는
秋晴古寺深 가을하늘은 맑게 개이고, 고찰은 산 속 깊이 있습니다.
客來留一宿 손님으로 와서 하룻밤을 숙박하니
松月助禪心 소나무에 걸린 달이 선 수행을 하는 마을을 돕습니다.

첩첩 산중에 있는 고찰, 인기척을 찾기가 힘든 곳이다. 더구나 주승도 아니고 하룻밤 묵고 가는 객승이니 외롭고 쓸쓸하기가 그지없다. 가부좌를 하고 조용히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다. 그 때 외로운 나그네의 선방에 누군가가 찾아왔다. 소나무 사이로 달이 슬며시 얼굴을 내밀며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묻는다. 자기도 같이 참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선할 때 누군가가 들어오면 선하는 분위기가 깨지는 것이지만 이 친구는 예외이다. 찾아오는 것이 오히려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해 준다. 달과 함께 밤 세도록 선에 몰입한다. 달은 티 한점 없이 깨끗하고, 맑고, 밝은 자태다. 자신을 전부

내 보이지 않고, 산 속의 소나무 사이로 살짝 얼굴을 내밀어 맑은 미소를 보이고 있다. 맑게 갠 가을밤에, 첩첩 깊은 산 중에 깊이 박혀 있는 천년 고찰에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선승의 진정한 동반(同班)으로서 말이다. 오랜 친구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한다. 경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은 그렇지 않다. 마음의 갈등도 없다. 싸우거나 경쟁할 이유도 없다. 枕肱은 《山中偶吟》에서 달 친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다.

山中無限趣 산중의 무한한 멋에 대하여
問着山中僧 절간 뜰 가운데 있는 스님에게 물어보니
答言山雨後 대답하기를 자기는 산비가 내린 뒤에
山月蒙雲屨 구름에 층층이 쌓인 산에 걸린 달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산 속에 박혀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기만 할 것이다. 재미도 없고, 기쁨이나 즐거움을 맛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지내는 것도 풍취가 있다고, 그것도 보통이 아닌 대단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스님에게 물었다. 절에서 수행하는 중에게도 취미가 있느냐고. 그 때 그 스님은 절간의 뜰 가운데 홀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적막한 산사의 뜰에 홀로 서 있는 스님의 모습은 쓸쓸하다. 아니 처량하기까지 하다. 고향 생각도 나고, 어릴 때 뛰놀던 친구 생각도 나고, 사랑하는 생가의 가족들 생각도 날 것이다. 산사에서 사는 것은 아무 재미도 없고, 바라는 바도 없고, 멋도 없고, 취미도 없을 것 같다. 스님이 대답한다. 자신의 취미는 산비가 내린 후에 구름에 층층이 쌓인 산에 걸린 달을 쳐다보는 것이라고. 가을비가 내리면 산사는 더욱 쓸쓸해 질 것이다. 여름 소나기처럼 강렬하지도 않다. 겨울 함박눈처럼 포근하지도 않다. 추적추적하기만 하다. 허나 그 비가 걷히고 나면 실 같은 구름이 산허리

에 겹겹이 쌓인다. 달이 떠도 층층이 쌓인 구름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달빛 또한 밝지 않고 흐릿하다. 실바람에 구름이 흘러간다. 사실 구름이 흘러가는지 달이 흘러가는지 분간할 수 없다. 허나 층층이 쌓인 실구름 속에서 하얀 얼굴을 내미는 산 위에 걸친 달을 보는 정취도 보통은 아니다. 그 달은 밝지도 않다. 모습을 전부 드러내지도 않는다. 숨은 듯 조금만 모습을 보인다. 달을 싸고 있는 구름으로 인하여 빛을 제대로 발할 수도 없다. 아직 세상을 밝게 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수행하는 승려로서 그 달을 바라보며 구름에 쌓여 희미한 자신의 내면을 본다. 하루라도 빨리 저 구름을 걷어내고 밝은 얼굴을 내밀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름이 걷히듯 온갖 번뇌가 걷히고 깨달음의 득도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산사에서 수행하는 스님이 가진 취미로서는 참으로 고상한 취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층층이 구름에 쌓인 달은 온갖 번뇌를 씻어내지 못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수행승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枕肱은 《題金流洞逍遙堂壁上》에서 이러한 좋은 친구와 지내는 무한한 기쁨을 외인들은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山月窓前白 산에 걸린 달은 창 앞에서 밝게 비치고
 溪聲枕上清 시냇물 소리는 베개 머리 위에서 맑게 들립니다.
 隱居無限趣 속세를 떠나 사는 무한한 멋을
 難與外人評 바깥사람과 함께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요.

선방의 창문 앞에 있는 저 달, 밝다 못해 그 색이 희다. 백옥처럼 깨끗하고 맑다. 그리고 그 태도가 한없이 겸손하다.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맑으니 곁에 있는 달 친구도 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다. 자신의 모습이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니 달의 모습도 겸손하게 보이는 것이다. 세상 어디에서 저렇게 우아하고 겸손한 모습의 친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머리맡에 계곡이 있다. 그날따라 계곡

에 흐르는 물소리 또한 한없이 맑고 깨끗하다. 잡음 하나 들리지 않는다. 잘 조화된 화음이다. 세상 어디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겠는가. 현대 바깥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똑 같을까? 아마 이런 느낌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번뇌가 가득하여 눈이 제대로 뜨이지 않으니 저 달의 우아하고 겸손한 자태가 보이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풍량이 가라앉지 않으니 저 맑고 깨끗한 시냇물 소리가 소음으로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바깥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런 취미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바깥세상 사람들의 생활과 선승의 생활이 같지 않고, 바깥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선승의 생각이 같지 않고, 바깥세상 사람들이 보는 달의 모습과 선승이 보는 달의 모습이 같지 않고, 바깥세상 사람들이 듣는 시냇물 소리와 선승이 듣는 시냇물 소리가 같지 아니한데 어찌 같은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어찌 바깥세상 사람들이 달과 함께 하는 선승의 풍취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나타난 달은 시인이 가만히 있어도 달이 먼저 찾아왔다. 그러나 枕肱은 달 친구가 자기를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친구를 찾아서 여기 저기 다니기도 한다. 그는 그의 가사 《太平曲》에서,

智異山 물근 바람 楓岳山 불근 돌과
太白山 雄峰下와 妙香山 깊은 고래
이리 가고 저리 가고 任意히 노닐며

라고 노래한다. 「智異山 맑은 바람」, 「楓岳山 밝은 달」, 「太白山 雄峰아래」, 「묘향산 깊은 계곡」 등을 찾아다니며 참선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시 《遊山》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智異東瞻大白月 지리산에서 동쪽으로 귀처럼 늘어진 태백산에 뜬 달을 보고
金剛西望妙香雲 금강산에서 서쪽으로 묘향산의 구름을 바라보고
名山遍踏寬心目 이름 있는 여러 산을 두루 밟아 마음과 안목을 넓히고서야

天下小言庶可云 온 나라가 작다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 해도 되겠지요.

함께 수행할 달 친구를 찾아 지리산, 태백산, 금강산, 묘향산 등 명산을 두루 다녔다는 것이다. 산 중의 사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보니 천하가 좁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만나는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좁은 방에서만 만나 무슨 깊은 정을 나눌 수 있겠는가. 번번한 지리산에서 가슴을 열어 놓고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험준한 태백산에서 강렬한 논쟁을 하면서 핏대를 세우기도 하고,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쌓인 회포를 풀기도 하며, 묘향산에서 태평세계를 위해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해야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는가. 여기까지는 시인과 달과의 1대1 관계였다. 枕肱은 달이 자기하고만 만나는 자기의 친구인 것으로 생각했다. 헌데 그것이 아니었다. 다른 선승인 백곡선사를 보니 그는 자기보다 더 훨씬 달과 친한 것 같았다. 자기는 달을 쳐다만 보고 있는데 백곡은 아예 달 가운데 노니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枕肱은 《贈白谷》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師佳雲林萬事休	스님께서는 세상을 피하여 아름다운 운림에 살면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靜看庭柏月中游	조용히 뜰 앞의 잣나무를 바라보면서 달빛 속에 자적하며 있습니다 그려.
吾嗟謾逐風兼雨	그런데 저는 한탄스럽게도 부질없이 바람과 비를 쫓아 다니면서
涉水登山望遠秋	물 건너고 산 넘어 다니면서 멀리 때가 오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백곡 스님, 그도 역시 枕肱과 같은 처지로 참선에 열중하고 있다. 같은 선승이면서도 枕肱은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을 얻을 보배로운

등불을 찾아 산 넘고 물 건너 남쪽 고을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것만이 아니다. 달 친구를 찾아 지리산, 태백산, 금강산, 묘향산을 두루 올랐다. 그런데 백곡은, 세상을 피하여 아름다운 숲과 구름이 있는, 운림에 머물러만 있다. 모든 일을 중단하였다, 오직 가부좌를 들고 참선에 정진하고 있다. 달마가 서역에서 온 진정한 뜻이 무엇 이냐고 묻자, 뜰 안의 백수자하고 대답했던 선문답을 화두로 말이 다. 그러면서 달 가운데 노니고 있다. 달을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달과 하나가 되어 있다. 나와 내가 하나가 되고,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된 세상, 얼마나 편안하고 조화로운 세상인가. 백곡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무아의 경지에 이른 것 같다. 하지만 枕肱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였다. 부질없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다. 산 넘고 물 건너 사방팔방을 헤매고 있다. 이제 알 것도 같다. 멀리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부터 枕肱도 혼자서만 달과 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인 달을 소개하기로 했다. 그는 《與故人遊仙巖寺》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秋晴孤寺夜 가을하늘이 맑게 갠 외판 절에서 지내는 밤에
相對月明時 달이 밝을 때에 서로 마주 대하고 있으니
此中無限興 이 가운데 무한한 흥이 일어나
坐咏古人詩 앉아서 옛 사람의 시를 노래합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더구나 반갑지도 않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다 갠 가을 밤. 첩첩 산중에 깊이 박힌 절집. 개미소리 마저도 들을 수 없는 고요한 밤. 옛 친구와 단 둘이 마주하고 있다.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친한 사이라 애깃거리도 마땅치 않다. 그저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심심하거나 지루하지는 않다. 멋진 친구를 하나 더 초대했기 때문이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친구 사이에서 초대받은 밝은 달이

분위기를 고조시켜주고 있다. 이태백과 같은 옛 시인들은 저 달과 더불어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읊었다. 산사에 술은 없어 거나하게 취할 수는 없다. 허지만 맑게 갠 가을 밤 깊은 산 중의 절간에 옛 친구와 마주 앉아 휘영청 밝은 달을 쳐다보는 가운데 무한한 흥취가 돋는다. 이 흥은 술기운 때문에 일어나는 순간적인 흥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은은하고 오래 갈 흥이다. 흥이 일어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옛 시인의 시를 읊으며 그 분들의 경지를 공유하고 싶다. 비록 시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흥내는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아무리 좋은 분위기도 영원할 수는 없다. 만나면 헤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다. 枕肱은 달을 초대하여 친구와 교유하면서도 이별을 예견했다. 사람 친구와의 이별은 물론 달 친구와의 이별까지도 예견했다. 그것도 먼 훗날이 아닌 바로 내일 올 이별이다. 그는 《送趙生之京》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相逢坐對孤村夜 서로 만나 마주 앉은 외로운 시골의 어느 날 밤
 不覺梅窓月欲殘 매화 나무 사이로 달이 지려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却恨明朝分袂後 오히려 내일 아침 소매를 나눈 후에
 一歸京路一歸山 그대는 서울로 가고 나는 사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조생원을 시골의 어느 마을에서 만났다. 둘이 마주 앉아 정담을 나눈다. 달 친구도 함께하였다. 밤이 깊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런데 벌써 달 친구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나 보다. 동쪽 하늘에서 만났던 달 친구가 서쪽 하늘에 있다. 문득 생각해 보니 달 친구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밤이 지나 내일 아침이 되면 공부하는 조생원은 다시 서울로 가고,

참선하는 枕肱은 다시 산사로 돌아가야 한다. 조생원과 枕肱, 달 친구 모두 갈 길이 따로 있다.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함께하고 있다.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니 아쉽기는 하지만 슬픔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헤어지면,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영한 이별이라면 마음이 아프고 슬플 수밖에 없다. 枕肱이 예견했듯 이별은 왔고, 막상 이별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는 슬픔이 크고. 벗이 없이 혼자 지내는 외로움 또한 견디기 어렵다. 그는 이별 후의 아픔과 홀로 지내는 외로움도 노래했다. 그 때도 달은 함께 했다. 침괩 한시에 나타난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로서의 달과 참선을 함께하는 동료로서의 달 다분히 불교적 성향의 이미지였다. 침괩 시에는 불교적 냄새가 나는 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한시에서 묘사되는 서정적인 달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그의 한시에 나타난, 슬픔과 외로움을 함께하는 서정적인 달을 본다.

K C I

3. 슬픔과 외로움을 같이 하는 벗으로서의 달

이상에서 우리는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내지 스승으로서의 달과 참선을 함께하는 친구로서의 달의 이미지를 보았다. 일반 한시에서는 달의 이런 이미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스님인 枕肱의 시에 나타난 달에 불교적 이미지가 풍긴다고 하여 서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枕肱의 한시에도 이별의 슬픔과 산사에서 수행하는 외로움을 함께하는 달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는 《張生損世後往見空座》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平生相與無相與 평생을 서로 더불어 같이 했으나 이제 함께 할 수 없으니
誰料歡情是痛情 누가 예상했는지 기쁘고 사랑하는 정이 슬프고 아픈 정이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一隔幽明千載恨 한번 유명을 달리함이 천추의 한인데
四休亭上月空明 사휴정³⁰ 위에 뜬 달만 쓸데없이 밝습니다.

枕肱은 한평생을 장생원과 더불어 시문도 짓고 정담도 나누면서 교제해 왔다. 그런데 장생원이 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장생원과 대면할 수도 그와 교류할 수도 없다.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고 슬픔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죽어 유명을 달리하는 것이 이렇게 길 이길이 잊지 못할 슬픔이란 말인가. 오늘밤 달은 사휴정 위에 헛되 이 쓸쓸히 떠 있다. 달도 장생원과 사별하고 슬퍼하는 枕肱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枕肱 한시에 나타난 달은 枕肱과 사별의 슬픔과 아픔을 같이 하기도 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 달은 枕肱과 이별 후 혼자 남은 외로움을 같이 하기도 했다. 그는

30) 四休亭은 사람에게 네 가지 만족하게 여겨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宋의 손방(孫防)이 제창한 안락법이다. 원래는 황정견(黃庭堅)의 「사휴거사시(四休居士詩)」에 나온다. 즉, ①粗茶淡飯飽即休, ②補破遮寒煖即休, ③三平二滿過即休, ④不貪不妒(妬)老即休이다.

《送 黃舍郎歸富有村》에서 외로움을 같이 하는 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在山人恨出山人 절에 남아있는 사람은 떠나는 사람을 한스럽게 생각하는 것
從此山光半欲貧 이제부터는 절의 영예가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收拾烟霞歸去後 그대가 연기와 노을을 수습하여 되돌아 간 뒤에
空山唯有月孤輪 텅 빈 산사에 오직 외로운 달만이 돌고 있을 뿐입니다.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고 절에 남아 있는 사람은 절을 떠나는 사람을 오히려 한스러워 한다. 절을 떠나는 것을 원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괜찮은 사람들이 하나씩 절을 버리고 떠나면 절은 누가 지키며 불교는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枕肱이 혼자 지내던 그 절에 황사랑이라고 부르는 선비가 와서 공부를 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그를 더 이상 산사에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부유촌에 돌려보냈나 보다. 그가 같이 있을 때 그 절은 황사랑이 공부하는 곳이라는 명예도 있었는데 이제 그가 떠나갔으니 이제는 오직 선승 하나가 수행하는 곳이라는 말 이외는 다른 명칭이 없게 됐다. 황사랑이 같이 있을 때는 밥을 짓거나 방에 불을 지피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해질 무렵 서산에 노을도 생겼지만, 그가 떠나간 후 혼자 남으니 밥을 지을 일도 별로 없고, 방에 불을 지필 일도 없어 연기와 노을마저도 구경할 수 없다. 사람도 떠나고, 연기도 나지 않고, 노을도 사라진 산사는 텅 비어 있다. 허나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니다. 텅 빈 산에 있는 것은 달 뿐이다. 홀로 외롭게 절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도는 것이 아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공연히 절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달은 텅 빈 산사에 홀로 남은 외로운 자신일 수도 있다. 외롭고 고독할 때 보는 달은 허전하고 공허하다. 텅 비어 있다. 枕肱은 《呈會蓮大師》에서, 이별 후 그리움에 젖은 마음

이 달과 같다고 노래한다.

憶曾連袂吐懷時 소매를 맞대고 회포를 나누던 그 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
다 보니
不覺禪窓日側遲 선창에 비친 해가 넘어갈 무렵이 된 것도 몰랐습니다.
別後寸心如滿月 이별한 후의 마음이 보름달과 같으니
何年重續舊佳期 어느 해에 옛 친구와의 아름다운 기약을 다시 이을까요.

소매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회포를 나누던 때가 생각난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그리워진다. 좌선을 하고 있지만 자꾸만 이별한 친구 생각으로 마음이 심란하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이 어느덧 선방에는 해가 기울어 간다. 회연대사와 이별한 후 시인의 마음은 항상 둥근 달처럼 공허하고 비어 있다. 먹어도 먹어도 차지 않고 허기를 느끼는 배와 같이 그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잊혀지지 않고 더 그리워진다. 어딘가 허전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언제 다시 만나 아름다운 옛 이야기를 계속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다. 허나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견딜만한 것 같다. 그래도 그렇게 죽도록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정말 가깝게 지냈던 사람과의 이별은 참을 수 없는 아픔이었다. 枕肱은 그의 한시 《呈金城閻生員客軒》에서, 아교와 옷칠의 만남처럼 정말 떨어질 수 없는 사람과 이별하는 아픔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노래한다.

匡山寺裡膠投漆 광산사에서 선생을 만난 것이 아교가 옷칠해 나감 같았는데
便隔想思鬢已蓬 이제 이별하여 서로 생각함에 귀밑머리가 쭉대처럼 되었소
長憶夢勞殘夜月 길이 생각하기에 꿈이 쇠잔한 밤 달에 시달렸고
每懷腸斷落花風 매양 생각하기에 창자는 떨어지는 꽃 바람에 끊어지는 듯하오
羨君道繼歐蘇後 그대의 도가 구양수와 소동파의 뒤를 이음이 부럽고
愧我名題渡遠中 나의 이름이 배도와 혜원의 가운데 들었음이 부끄럽소
何日錦溪亭上晚 어느 날 금계 정자 위에서 느지막이

共聞村笛倚孤松 함께 시골의 피리소리 들으며 외로운 소나무에 기댈까.

枕肱과 금성의 민생원이 만난 것은 광산사였고 그 두 사람의 우정은 참으로 깊었던 것 같다. 枕肱은 그들의 친교를 膠投漆³¹⁾과 같다고 하였다. 그렇게 친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의 사람들이 이별하였다. 그리고는 날마다 그리워하고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민생원만 생각했는지 귀밑머리가 쭉대처럼 하얗게 되었다. 밤마다 선생의 꿈을 꾸는데 지는 달 때문에 그 꿈이 깨고 만다. 언제, 어디서나 민생원만 생각하는 시인의 마음은 꽃바람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했다. 구양수와 소동파의 뒤를 이을 정도로, 민생원의 유생으로서의 지식과 시작(詩作)수준이 뛰어남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자기의 선승으로서의 수준이 아직도 배도와 혜원³²⁾의 가운데쯤에 머물러 더 나아가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아무튼 枕肱은 꿈에도 그리는 민생원을 ‘언제쯤이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와 해질 무렵 금계정에 올라 소나무에 몸을 기대고 앉아 함께 시골의 피리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다. 달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민생원을 그리워하는 枕肱과 함께 있어 준다. 그러나 무한정 같이 있어 줄 수는 없다. 달도 갈 곳이 있고, 반드시 가야만 한다. 그래서 가야만 하는 달과 침핑(枕肱)은 실랑이를 한다. 조금만 더 같이 있어 달라고 애원을 한다. 떠나려는데 잡은 시인으로부터 달이 시달리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뿌리치고 떠나는 달을 잡고 조금만 더 같이 있어 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31) 아교가 옷칠해 나감: 지극히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교분을 말한다. 『후한서(後漢書)』「독행전(獨行傳)」에 진중(陣重)과 뇌의(雷義)의 우정을 설하면서 ‘아교와 칠이 서로 붙는 것보다 더하다’ 고 하였다.

32) 혜원(慧遠, 523~592)은 수나라 승려로 여산에서 백련사(白蓮社)를 만들어 염불을 권하는 결사를 했다.

IV. 맺음말

이 연구에서 필자는 枕肱 한시에 나타난 달의 다양한 양상과 그에 수행 반려자로서의 달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문학작품, 특히 한시의 연구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해석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된 작가의 사상과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를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작품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작가와 호흡을 같이 할 때 비로소 그 작품의 맛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연구하는 기쁨을 맛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枕肱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승려가 된 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공부도 하고 참선도 한 선승이었다. 그는 승려로서는 많은 문학작품을 남겼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것만도 한시가 119수, 문이 28문, 가사가 4편이나 된다.

그의 한시에는 특히 달이 많이 나타난다. 그는 달의 모습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잘 묘사하였으며, 달이 나타난 시점과 분위기도 다양하게 표현했고, 달이 나타나는 장소와 계절도 달리하였다. 枕肱의 한시를 연구하면서 달을 자유·자재로 묘사하는 그의 재능에 놀랐다.

침핑 한시에 나타난 달의 이미지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세속을 초월한 물외 세계에서 세상을 밝게 밝히는 오도의 대상으로서의 달,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반려자로서의 달 등 불교적 이미지를 풍기 것이 많기는 하지만, 일반 한시에서와 같이 서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있다. 선승인 枕肱이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참선이었다. 그는 평생을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참선에 정진하였다. 참선을 하는 동안만큼은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다. 오직 달만이 그와 함께하였다. 수행의 반려자였다. 枕肱 한시에 나타나는 달은 때로는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기고 했고, 참선을 함

계하는 同班이기도 했으며, 슬픔과 외로움을 같이 하는 진정한 친구이기도 했다.

이상 우리는 枕肱의 한시에서 다양한 달을 보았다. 달이 나타나는 형상과 시점, 주위 환경과 분위기, 달을 통하여 시인이 전하는 메시지도 읽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는 달을 이렇게 잘 표현한 시인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통의 경우에 시인들은 달을 희화하거나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고, 술과 함께 달을 묘사하기 때문에 달의 모습도 또렷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침굉 한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달은 선승을 오도로 인도하는 등불이고, 스승이고, 인도자였으며, 무아정적의 경지에서 선에 몰두하는 동료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올곧고 다정하고 겸손한 친구였다. 때로는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슬픔과 외로움을 같이 하기도 했다. 어디 한군데 흐트러진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枕肱 한시에 나타난 달의 청아하고 밝은 모습은 그가 찾고자 하는 사승의 모습이고, 침굉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이고, 오로지 선에 정진하는 그의 모습 자체인 것이다.

침굉의 한시는 아름다우면서도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불교 한시로서의 독창성도 뛰어나다. 불교적 색채만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정적인 면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한시는 그의 가사와 함께 우리 문학사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충분한 연구가치도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 별로 연구되어 있지 않는 그의 한시, 나아가 그의 가사와 문 등 枕肱의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질 것을 기대하면서 글을 마감한다.

참고 문헌

1. 原典類

『枕肱集』, 목판본, 선암사소장.

『枕肱集 下』, 목판본, 선암사 소장.

『枕肱 歌辭』, 목판본, 선암사 소장.

2. 論著類

강석근, 『한국불교시 연구』, 이회, 2003.

김달진, 『현대 한국 선시』, 열화당, 1997.

김동화, 『한국역대고승평전』, 삼성문화재단, 1974.

박준규,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문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7.

박재금, 『한국 선시 연구』, 국학자료원, 1998.

이영무, 『침괘집』, 불교춘추사, 2001.

이병환, 『치자꽃 향기 코끝을 스치더니』, 민음사, 2000.

이상보, 『한국불교가사전집』, 민속원, 1996.

———, 『한국 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91.

이진오, 『한국 불교 문학의 연구』, 민족사, 1997.

이형기 외, 『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 동화출판공사, 1991.

정 민, 『한시 미학 산책』, 솔, 2004.

3. 論文類

강학영, 「한국 불교사상에 나타난 정토사상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81.

김석태, 「18세기불가시문학의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5

임준성, 「매월당 김시습의 불교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3

정혜란, 「침필의 가사문학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3.

조태성, 「초의선사의 시문학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3.

<투고일 : 2004.12.31. 심사일 : 2005.1.20. 심사완료일 : 2005.2.2>

K C I

Abstract

A Study on the Image of the moon, in the
Chingweng's chinese poems

Jung, Hye-ran

Chingweng was a Buddhist priest. He lived in the 17th century. He wrote 119 poems, 4 libretto, and 27 writings. This study is on his chinese poems, especially the image of the moon appears in his chines poems.

Chingweng's chinese poem is buddhist literature and has buddhistic color, but it is beautiful as a lyric poem. The moon appears forty-seven times in his poems. The moon, in his chines poems, comes out as a varied appearance and comes in sight in the evening, sometimes in the midnight, sometimes early in the morning.

This study aims to make a study of the image of the moon, appeared in the his poems. Chingweng train himself Zen. Therefore he stayed at a small room in temple or a valley alone. There was no person around him. He has no teather. He has no friend. He felt lonely and sad. Sometimes he met his friends, but had to go back to the temple soon. Separation from his friends made him sad. Or he was loath to part greatly grieved over the death of his friends. At the moment the moon consoled him. Chingweng wrote a poem about this

moon.

In conclusion, the moon which appears in Chingweng's chinese poems has a image of a teather, or a companion, or a friend.

Key words : Chingweng, the image of the moon, a image of a teather, companion, friend

K C I

KCS I